

제17편
제3신앙촌시대(제4부)
一. 완성자 구세주 출현
二. 종교(宗敎)를 개종(改宗)함
三. 결혼을 금지시키고 부부를 갈라지게 함

一. 완성자 구세주 출현

영모님은 구세주 하나님의 영적 임마로서 승리하신 하나님(구세주)을 배출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을 당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영의 말씀이시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비참함 속에 계신 것을 보고 내가 우는 상태에 있다가 힘을 얻은 다음에도 마귀가 찾지 못할 그런 공간에 모셔 놓고 있는 것이다. 마귀를 한 마리까지 죽이고 벗어나는 데까지는 육신의 노력이 기가 찾았다. 그러나 그 다음 그것이 된 다음에도 왕마귀가 보지 못할 층에다가 모셔 놓은 것이다.”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영모님은 이기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낳아 키우시는 데 피를 20번이나 토하는 사경을 헤매는 해산의 수고를 했으며 완성자 구세주를 낳아 키우시는 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간증하시고 계신 것이다.

승리하신 하나님(구세주)이 1980년 10월 15일 밀실에서 출현하였다는 것은 이미 '밀실' 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영모님께서 구세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은 다 1981년, 1982년도의 말씀인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 그것은 영모님께서 구세주를 배출하시고 데성공을 거두시고도 일이 년을 비밀로 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구세주 출현을 밝혀도 되겠다고 생각되는 시점부터 구

세주 하나님의 출현을 알리고 계신 것이다. 영모님은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비밀리에 승리의 과정을 지켜보다가 조희성님이 끝판에 나심을 하시어 목숨을 끊으려고 하실 때에는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된다”고 호통을 치고는 혼자 잠적하여 피를 토하면서 사투를 벌였고 바로 그 시점에 낙심하여 죽으려고 하는 조희성님에게 영적으로 가시어 죽음을 만류하고 힘을 주어 조희성님이 승리하신 하나님 구세주로 출현을 하는 데 성공하셨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직 영모님과 예정된 구세주이신 조희성님만 아는 극비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아슬아슬한 과정이 다 끝나고 성공리에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하신 것이다. 그리고 영모님은 일이 년 경과한 후에야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계신 것이다.

“2년전까지 이긴자의 정체를 숨겨왔다.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못하게 가지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82.2.22)”

영모님은 분명 2년 동안이나 이긴자의 출현을 숨겨 왔다고 실토하셨다. 그리고 발표하실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못하게 가렸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세주의 출현을 위하여 얼마나 조심하셨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계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다.

“밥도 먹고 배설도 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고급 화장지를 사다 주었다.(82. 3.1. 축복일)”

모든 사람들이 상식화 되어 있는 보

제17편 - 제3신앙촌시대(제4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4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석방시켜 모체에 숨겨냈다고 한 영모님. 모체는 바로 밀실(위 사진)이다

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신 것이다.

성경에서도 구세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있을 것을 말씀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사 7:14)” 여기서 구세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였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계신다는 뜻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계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영적인 처녀인 영모님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강일순 선생은 구세주인 대두목의 출현을 ‘수원 나그네’로 비유해서 증거했다. “상말에 이제 보니 수원 나그네라고 하였나니 누구인지 모르고 대하다가 다시 보니 낮이 익고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니 낮을 잘 익혀두라(중

산도 도전 1편 16장 7-8)” 이 말은 수원 나그네 같이 오고가면서 얼굴을 마주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이 대두목인 구세주가 되는 분이니 낮을 잘 익혀두라고 하는 말이였다. 그러나 강증산 선생의 말하신 이 말의 뜻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알리는 것이다.

또 격암유록에 보면 “사인불인(似人 不人)”이라고 하여 구세주인 정도령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지만 사람같은 모습으로 출현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상 생활이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듯 구세주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밥도 먹고 배설도 하는 하나님이이다. 그래서 내가 고급 화장지를 사다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6000년간을 탄식을 하며 찾아 헤매도 너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

다. 누가 죄를 씻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 씻는 법을 캐내고 그 수많은 수의 죄를 씻어주니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마. 너는 풍구덩이 같은 죄를 다 말은 주인공이다(80년 12월 14일 말씀).”

영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명인 구세주 출현을 완수한 후 당신이 그토록 기가 막힌 해산의 고통 끝에 영적으로 낳은 아들 구세주가 너무나도 귀엽고 대견하여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내가 6000년간을 탄식하면서 찾아 헤매도 너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누가 죄 씻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 씻는 법을 캐내고 그 수많은 수의 죄를 씻어주니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구나”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말씀인가! “너무너무 귀엽고 아름답구나”라고 표현 하는 말씀에 사랑과 정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시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마”라고 하는 말씀은 6000년 만에 찾은 구세주를 향해서 모든 권세를 맡겨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너는 풍구덩이 같은 죄를 다 말은 주인공이다”라고 하신다. 당신이 6000년 만에 낳아 키워 세운 구세주가 풍구덩이 같은 인간들의 죄를 담당할 기가 막힌 고통을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제는 길도 다 왔다. 이제는 순종만 하면 원죄까지 다 속 뽑아서 영원한 그 아름다운 세계에 영원토록 지내게 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 그 엄마 곁에서 설교할 적에 가서 듣고 그러면 되는가? 구경만 하면 되는가? 이제는 입어야 되는 것이다. 은혜를 받는

데는 그 조건밖에는 없는 것이다(1981. 12. 28. 신앙신보).”

당신이 이끌고 가던 전도관의 길은 다 왔다는 뜻이다. 당신의 사명인 구세주를 출현시키시는 데 성공을 거두신 때이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만 하면 원죄까지 속 뽑아서 영원한 세계에 가게 해 주는 사람 즉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알고 있다. 영모님이 아닌 ‘그 엄마’ 곁에 가서 은혜를 입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 영모님 말고 다른 엄마인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 속의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는 이긴자가 나왔으니 그를 통하여 하라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 그 모든 죄의 뿌리까지 뽑아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는 인간만이 최고의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81.12.2. 신앙신보)”

“이긴자가 안 나오면 나도 지옥이야(80.11.말씀)” 하시면서 우시던 영모님은 지금은 그 이긴자가 나왔으니 그에게 가서 죄의 뿌리까지 뽑아서 아름다운 세계 즉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영모님이 아닌 다른 이긴자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마귀인 원죄까지 뽑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는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알리고 계신 것이다. 인간을 위시한 모든 삼라만상과 하나님까지도 그토록 마음을 졸이시며 기다리시던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하시는데 성공을 거두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56회

隱秘歌(五) 은비가

末聖聖君容天朴 말세성군용천박
弓乙之外誰知人 궁을지외수지인
瀛州蓬萊三神山 영주봉래삼신산
十勝中地朴活處 십승중지박활처
養生工夫人不離 양생공부인불리
脫劫重生更無變 탈겁중생경무변
若求不死願永生 약구불사원영생
須問靈神木將軍 수문령신목장군
天地牛馬世不知 천지우마세부지

하나님이 좌정하신 말세성군(末聖聖君) 박(朴=木)을 궁을 즉 십승지인(十勝之人) 본인 이외에 어느 누가 알겠는가? 신선이 산다는 영주(瀛州) 봉래(蓬萊) 방장(方丈)이라는 삼신산(三神山)이 십승(十勝)인데 십승의 한가운데에 박(朴=木)이 살고 계시느니라. 목인(木人)은 세 분으로 나오게 되며(삼인동행三人同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완성의 정도령으로 출현한다.

양생공부(養生工夫) 즉 영생의 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십승의 진리를 떠나지 말라. 탈겁중생(脫劫重生) 즉 성령(聖靈)으로 거듭나면 다시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을 겪지 아니 하리라.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불사영생不死永生)를 원한다면 모름지기 신령스러운 하나님이신 목장군(木將軍=목인木人=감람나무의 사람=정도령)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세상 사람은 천마지우(天馬地牛) 즉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만큼 정도령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鄭氏天姓誰可知 정씨천성수가지
容天朴人容天伯 용천박인용천백
何姓不知鄭道令 하성부지정도령
無後裔之血孫出 무후예지혈손출
無父之子天縱聖 무부지자천종성
西雙東逢解冤世 서수동봉해원세
長安大道正道令 장안대도정도령
鄭本天上雲中王 정본천상운중왕
再來春日鄭氏王 재래춘일정씨왕
馬枋兒只誰可知 마방아지수가지
馬姓何姓世人察 마성하성세인찰
眞人出世分明知 진인출세분명지
憤之憤之兪君子 신지신지침군자
運來前路松松開 운래전로송송개
蘇城白殿殺氣滿 소성백하살기만
四面百里人影絕 사면백리인영절

정씨(鄭氏)가 하늘의 성(姓)씨라하는 것을 누가 가히 알리요. 말세성군인 용천박(容天朴)은 사람의 얼굴을 한 하나님으로 중천운(中天運)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니라(목운 5도72궁).

정도령은 어떤 성씨인지를 모르느니라. 정씨(鄭氏)의 후예나 혈손에서 나오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신 성인(聖人)으로서 서방에서 원수가 되어 맺힌 원한을 동방에 와서 푸느니라. 영원토록 안락(安樂)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장안대도(長安大道)의 주인공 정도령은 본래 천상의

운중왕(雲中王) 즉 중앙무기오십도(中央戊己五十土)의 주인공 하나님이요, 삼위일체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정씨왕(鄭氏王)이니라.

마방아지(馬枋兒只=마굿간의 아기=구세주)를 누가 가히 알리요. 마성(馬姓=정도령의 성씨)이 어떤 성씨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진인(眞人)이 세상에 나오셨음을 분명히 알리라. 세상의 모든 군자들은 말과 행동을 삼가고 또 삼가서 궁을가(弓乙歌)를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말지어다.

궁을가에서 말하는 좋은 운이 와서 앞길이 술술 열리느니라. 깨어나서 예덴동산(천국)을 이루어야 할 나라(한국)의 백성들이(좁게는 정도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신 속의 마귀를 없애는 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밖 사람들을 마귀로 여기고 없애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에) 살기(殺氣)가 가득하면 사면(四面) 배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끊어지리라. 궁을가(弓乙歌)는 조선시대의 정복장 선생의 글이라고 전해지며 오지(要旨)는 앞으로 인류가 꿈꾸던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뀐 사람만이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다.

欲求人生安心處 욕구인생안심처
訪道君子極濟蒼 방도군자극제창
二加一橫二人立 이가일횡이인립
八十一俱富饒地 팔십일구부요지

兩白三豐有人處 양백삼풍유인처
彌勒出世亦此地 미륵출세역차지
金鳩班鳥聖神鳥 금구반조성신조
紅鸞異跡降雨露 홍란이적강우로
木兔再生鄭姓運 목토재생정성운
三時重生鄭本人 삼시중생정본인
儒佛仙三各人出 유불선삼각인출
未復合一聖一出 말복합일성일출
武弓白石三豐理 무궁백석삼풍리
移山倒海變化運 이산도해변화운

도를 찾는 군자들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창생들을 구제하는 곳이 있는 인천 부평을 찾아가라. 이가일횡이인립(二加一橫二人立)은 인천(仁川)자의 파사. 팔십일구부요지(八十一俱富饒地)는 부평(富平)의 파사. 옛날의 인천 부평은 현재의 소사를 포함한다.

이 화우로(火雨露) 삼풍(三豐)의 감로해인을 임의용지(任意用之)하는 십승지인(十勝之人)이 계신 곳이요 미륵불이 출현하는 곳도 역시 이 곳이니라. 금비둘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새요 봉황새가 기사이적(奇事異蹟)을 행하니 화우로 삼풍의 감로해인을 내리느니라. 금비둘기나 봉황새는 금운으로 오는 정도령(미륵불)을 의미한다.

동방나라 한국에 온 목운(5도 72궁)이 재생하는 것도 정도령의 운이 그러함이요. 세 때에 거듭나시어 마지막 6도 81궁으로 오시는 것도 정도령(미륵불, 구세주 하나님) 당신신 본인이사라. 유

정도령은 유불선을 하나로 통합해서 나오느니라



불선(儒佛仙) 삼도(三道)에서 각기 성인이 한 사람씩 나왔지만 끝에 가서 다시 하나로 합쳐서 한 분의 성인(6도 81궁 정도령)으로 나오느니라. 무궁(武弓)은 궁을의 십승지인이 감로해인으로 마귀를 죽인다는 뜻이요 백석(白石=흰돌) 삼풍(三豐)의 이치로 산을 옮기고 바다를 뒤집는 변화를 일으키는 운을 가지고 오시느니라. 소사에서 십승지인이 화우로 삼풍 감로해인으로 마

귀를 박멸소탕하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무궁(武弓)은 궁을의 십승지인이 감로해인으로 마귀를 죽인다는 뜻이요 백석(白石=흰돌) 삼풍(三豐)의 이치로 산을 옮기고 바다를 뒤집는 변화를 일으키는 운을 가지고 오시느니라. 소사에서 십승지인이 화우로 삼풍 감로해인으로 마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별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